

Hamartoma of Spleen: Three Case Reports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호현, 박은규, 성진식, 허영희, 고양석, 김정철, 조철균, 김현종

배경: 비장의 과오종은 1861년 Rokitansky가 처음 보고한 이래 약 200여의 산발적인 보고가 있는 드물게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대부분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나 부검시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특이한 주관적 증상 없이 우연히 비장 종양을 발견한 35세 남자와 좌측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29세 여자, 간세포암과 동반하여 발견된 비장의 종물 소견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한 43세 남자 환자에서 비장 절제술 후에 모두 비장의 과오종으로 진단된 경우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Patient 1) 환자는 35세 남자로 혈액검사상 혈소판저하증(thrombocytopenia) 소견보여 시행한 검사상 비장의 종괴 소견 보여 본원 내원하였다.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10.0×9.3 cm 크기의 동맥기에서 조영 증강되는 비장 종물 소견 보였다. 비장의 양성 혈관종 의심하에 복강경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 상 비장 상부에 정상 비장 실질을 압박하고 있는 피막이 잘 형성된 약 8×8 cm 크기의 종물 소견 관찰되었으며, 단면은 짙은 갈색(dark brown)을 띠고 있었다. 그 외 복강 내 다른 장기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수술 후 조직 검사상 비장의 과오종으로 진단되었다. (Patient 2) 환자는 29세 여자로 6개월부터 간헐적인 좌상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복부 초음파 검사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비장의 하방-중앙 부위(infero-medial aspect)에 경계가 좋은 약 4.7×4.4 m 크기의 조영 증강 되는 종물 소견이 관찰되었다. 비장의 양성 혈관종 의심하에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 상 비장 하부에 경계가 명확한 약 4×4 m 크기의 종물 소견 관찰되었으며, 주위 장기로의 침윤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조직 검사상 비장의 과오종으로 진단되었다. (Patient 3) 환자는 43세 여자로서 간기능검사(liver function test)상 이상 소견 보여 시행한 검사상 간과 비장의 종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우측 hepatic dome과 간 좌엽의 외측 구역(lateral segment)에 약 4×3.4 cm, 3×2.3 cm의 간세포암으로 생각되는 종물 소견과 함께 비장 hilum에 인접하여 약 4.2×3.5 cm의 돌출된 종물이 관찰되었다. 간세포암과 비장의 양성 종양 의심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조직 검사상 간세포암과 비장의 과오종으로 진단되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비장의 과오종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비장의 양성 종양으로 복부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 촬영상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비장에 발생한 과오종 3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